

# 원유가현실화 위한 우유항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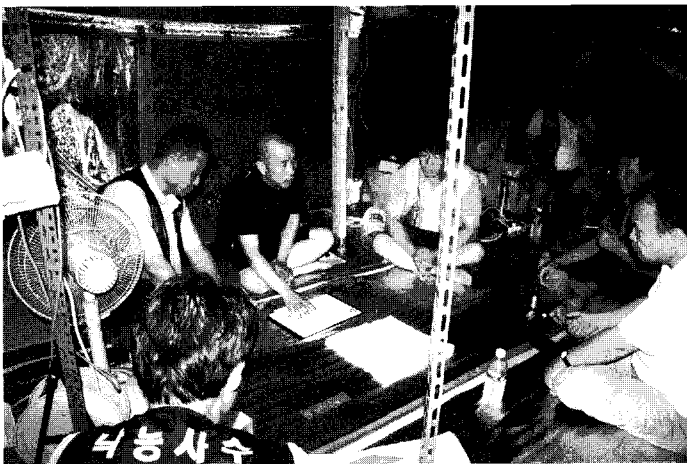
7월 31일 투쟁 6일째

## 7차 협상 격론 끝에 결렬

원유가 협상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후 2시. 낙농진흥회에서 개최된 7차 원유가협상이 정회, 속개를 반복하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재차 결렬된 것이다. 이날 협상에서는 60원, 81원의 진흥회안이 제시되었다. 협상 40일만이다. 당초 진흥회는 중재안을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1,080가지 진흥회 안이 있다'고 밝혀와 낙농가들을 분노케 했다. 생산자측 협상대표들은 진흥회 제시안을 듣고 허탈해하면서 진흥회가 계속적으로 현장실정을 무시한다면 굳이 협상장을 진흥회에 꾸릴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날 생산자 대표들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목장경영 안정이 우선임을 재차 밝히고 수지가 맞지 않는 우유는 생산할 수 없다며, 수요자측 대표들에게 목장현장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양측이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수요자측은 생산자가 요구한 목장경영 실태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진흥회 제시안 수준 이상으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8월 5일이 협상 마감시한임에도 양측은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7차 소위원회가 마무리되었다. 집유 거부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 협상장에는 농식품부가 배석해 정부가 중재할 것이 있다면 협상에 참여하

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채 회의 내내 무겁게 자리를 지켰다.

이에 협회는 즉시 '꼭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나!'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전면적인 집유, 납유거부 투쟁으로 접어들 경우 단순히 원유가 현실화문제 뿐만 아니라, FTA를 비롯한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 낙농진흥회의 철폐문제, 유업체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낱알이 밝히고 반드시 책임 지을 것이라고 정부, 진흥회, 유업체에 강력히 경고했다.

## 8월 1일 투쟁 7일째

### 8·3 집유거부 투쟁, 언론사 취재열기 고조

7.31일(월) 원유가 협상이 결렬되자, 8·3 집유거부 투쟁 열기가 최고조로 올랐다. 여의도 농성장은 아침부터 협상결렬 소식에 흥분한 지역 낙농가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이들은 정부, 유업체와의 더 이상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일일 공급중단이 아니라 당장 납유거부로 가자는 격앙된 지역분위기를 전해왔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금일 아침 MBC뉴스투데이 집유거부 투쟁 보도를 시작으로 방송사, 일간지, 인터넷 매체의 취재 문의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낙농가들이 우유공급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고, 계속적으로 사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납유거부 중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협회는 오전 통계청장 면담 요청을 시작으로, 낙농진흥회에 총회 소집요구와 8·3 집유거부 투쟁시 집유차 운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도청·시군청에는 집유거부 투쟁 이후 납유거부 및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농가부채를 대신하여 우유반납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우유 반납시 반납 장소와 반납통을 준비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지역 투쟁열기도 심상치 않았다. 협회 산하 도지회에서는 금일 일제히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중앙회 지침 전달과 자체적인 8·



3 집유거부 투쟁방안을 수립하였다. 특히 경남도지회에서는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언론에 집유거부 투쟁의 불가피성과 향후 투쟁각오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농민단체의 연합체인 농수축산연합회에서도 농식품부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농식품부(낙농진흥회)는 목장원유가 현실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할 시에는 정부는 낙농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낙농진흥회가 그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모든 농민단체들과의 공고한 연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은 물론 더 나아가 철폐까지도 요구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 8월 2일 투쟁 8일째

### '정부·유업체, 40일 까먹고서야 흥정에 나서' 8·3 집유거부 투쟁 D-1, 낙농가 분노 폭발

전국 낙농가들의 집유거부 투쟁은 대한민국 언론 핫이슈였다. 이날 오전 7시 30분 KBS2라디오 '박경철의 뉴스포커스' 전화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MBC, KBS, SBS, OBS, MBN, YTN, SBS NBC, CBS 뉴스, 시사프로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와 전화, 현장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 순서를 기다리며 농성장에서 대기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일간지 기자들의 취재 전화도 폭주해 농성장 업무가 울스톱되었다.



낙농가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과 달리, 정부와 유업체는 둘러대기 바빴다. 협상기간 40일 동안 한 치의 성의도 보이지 않던 정부와 유업체가 협상장에서 취한 태도와 달리, 언론을 통해 81원이라는 수치를 함께 제시하고 생산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에 협회는 곧바로 성명서 발표를 통해, 173원은 협상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목장실태에 따른 실질 생산비를 근거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치라고 못 박았다. 41원, 60원, 81원 흥정하면서 낙농가 생존권을 악용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불가당국인 기재부 결재가 81원이나며 꼬집었다.



오후 4시. 농식품부 축산정책관과 생산자측 대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축산정책관은 '농식품부는 개입한 적 없다', '수요자가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생산자가 양보하여 합리적 선에서 타결바란다' 라고 말해 생산대표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현장여론은 즉시 납유거부라며 농식품부 안일한 상황인식을 질타했다. 또한 173원은 생존을 위한 최소수치라며 농식품부가 가격통제에 나서려면 사료값부터 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생산자측 대표가 진흥회 무능에 대해 지적하자, 오히려 문재풍 낙농진흥회장은 '똑바로 얘기 하시오!' 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 8월 3일 투쟁 9일째

### 8차 소위 진전 없이 또 결렬!

#### 8.3 집유거부 성료!

낙농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집유거부 투쟁이 개시되었다. 이날 오후 2시, 전국 낙농가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8차 원유가 협상이 낙농진흥회에서 개최되었다. 각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열기 속에 모두발언을 맡은 유가공협회 김시환 전무는 "낙농가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자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낙농가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낙농가가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문맥논리에도 어긋나는 발언을 시작해 기자들의 열띤 질타를 받고 모두발언을 다시 정정해 진행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생산자 대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협상장이 생산자대표들에 의해 발각 뒤집혔다. 집유거부 투쟁을 앞둔 지난 8.2일 낙농진흥회가 전격적으로 7차 협상결과를 왜곡하는 보도자료가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회의에 앞서 현장취재차 방문한 방송사 기자들이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생산자측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 낙농진흥회 보도자료(‘원유가격, 조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에 따르면, 7차 협상에서 낙농가의 요구로 173원에서 183원으로 올라갔고, 유업체는 인상제시안을 당초 41원에서 81원으로 통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왜곡하여 낙농가들을 음해했다. 윤성식 위원장도 낙농진흥회의 성급한 행동에 대해 질책하였으며, 이에 낙농진흥회 전종철 전무가 공식 사과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측은 7차 협상에서 언급한 바 없이, 언론보도에서 유가공협회측이 협상에서 제시하였다고 밝힌 81원 인상안에 대해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뒤늦게 유업체측은 자료 제시와 함께 81원이 공식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시작 5시간 동안 정회, 속개를 반복하였지만 양측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자 다음 회의일정도 잡지 못한 채 8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0시부터 우유공급 재개’, ‘유업체 100원까지 감수, 낙농가 150원까지 양보’ 등 악의적인 언론오보가 속출되자, 협회는 해당 기자들에게 강력 항의하였다. 이승호 협회장은 정부, 낙농진흥회, 유업체의 몰타기 전술이 시작된 것 같다

며, 40여일 동안 협상을 지체해가면서 막상 여론이 악화되자 사태해결은 뒷집인 채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참석자들이 농성장으로 돌아온 직후, 농식품부 권한호 축산정책관과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이승호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진흥회의 협상내용 왜곡 보도 건과 관련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격노하면서, 어느 누구든 책임자를 밝혀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최후통첩을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사료값을 잡던지, 173원 원유가 현실화를 하던지 양자택일하라며, 더 이상의 농가 폐업을 막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단언하였다.

한편, 역사적인 8.3 집유거부 투쟁이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8.2일 저녁부터 8.4일 새벽까지 진행된 집유거부 투쟁에 전국 대부분의 낙농가가 적극 동참하면서 집유거부(공급중단)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였다. 집유거부 투쟁 소식에 유업체에서는 농가들을 회유하고 협박도 했지만, 우리 낙농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부분 농가가 집유거부 투쟁에 동참했다. 종일 전국적으로 집유를 강행하려는 유업체 관계자와 낙농가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농가들이 집유장을 틀어막고 시위를 갖기도 했다.

8.3일 오후 들어서는 유업체 측에서 늦은 밤 또는 자정 직후 집유를 시도하여 일부지역에서 동요가 있었지만, 협회에서 신속히 지침 전달을 통해, 익일 아침 착유시간까지는 절대 집유거부 방침을 알리면서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당일 농성장에는 수백통의 농가전화가 걸려와 집유거부 상황을 스스로 알려오면서, 협회가 어떤 지침을 내리든 적극 따르겠다고 결사투쟁 의지를 재차 다졌다.



## 8월 4일 투쟁 10일째

낙농진흥회, '협상결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 로 낙농가 음해  
시나리오 들통

이승호 회장, 농식품부 제2차관 · 낙농진흥회장 향해 격노

*'차관님! 이 뉴질랜드산 분유로 만든 요구르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원입니다!, 현실을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식 중인 이승호 회장이 어제오늘 발생된 상황에 대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승호 회장이 협상기한을 하루 앞두고서야 금일 오후 2시, 농성장을 찾은 농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을 향해 격노했다. 오정규 차관은 정부입장이라며, '기준과 원칙', '생산자도 어렵지만, 소비자도 고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이사회에서 처리'를 설명했다. 이에 이승호 회장은 곁에 있던 모유업체 뉴질랜드산 분유로 만든 요구르트를 내보이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원입니다. 우리 피같은 우유는 1리터에 830원입니다. 이게 낙농가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못잡고, 왜 농가만 잡습니까'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회장은 낙농진흥회에서 허위, 날조 보도자료를 계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은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낙농가를 음해하려는 의도이며, 정부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흥회 관련자의 사죄와 처벌 없이는 협상에 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전, 오후 문제품 낙농진흥회장이 두 차례 경직된 표정으로 농성장을 찾



았으나 입을 굳게 닫은 채 돌아갔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진흥회가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질책했다. 진흥회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마치 낙농가가 생떼를 쓰는 몰지각한 무리로 포장한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허위 보도자료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사직서를 갖고 오라고 고성을 질렀다.



낙농진흥회는 8.2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7차 협상에서 생산자는 173원에서 183원으로 요구안을 인상하였고, 유업체는 41원에서 81원으로 양보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정정도 8차 협상에서 사과를 통해 약속한 것과 달리 해명수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낙농진흥회의 그릇된 상황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는커녕 기자들에게 당일 협상이 개최되지 않는 사유를 생산자의 불참으로 떠넘기기까지 했다. 뒤늦게나마 이날 밤 9시, 농성장에 낙농진흥회 전종철 전무, 조재준 부장이 농성장을 찾아와, 사죄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전, 협회에서는 특임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원유가 현실화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원유가 현실화는 농가 생계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더 이상 지체된다면 낙농 생산기반 붕괴가 자명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필수식량인 우유도 제대로 못 주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낙농가의 추가 폐업을 막고 최소한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유가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를 강조했다. 이에 협상종료가 임박한 만큼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8월 5일 투쟁 11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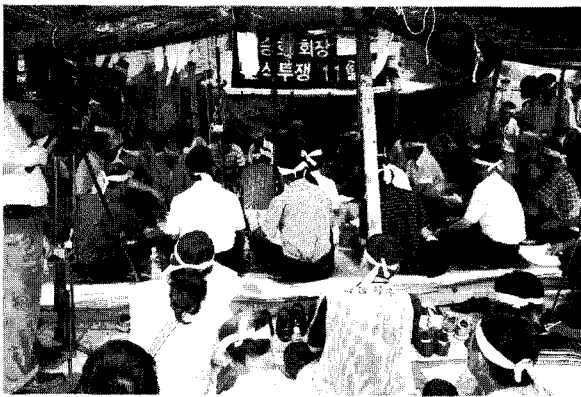
'무기한 납유거부 돌입키로 , D-day 8.10(수)'

이날 오전 10시. 8차 협상이 속개되었다. 양측은 기준생산비, 비교생산비 기준설정에 따른 인상금액결정안과 일괄타결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납유거부 사태가 예정된 마당에 세부방안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 촉박하기 때문에 일괄타결 방식으로 인상금액을 결정키로 하였다. 낙농진흥회는 중재안으로 103원/ℓ, 119원/ℓ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윤성식 위원장은 양측이 돌아가 의견수렴 후 오후 4시에 9차 협상을 개최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농성장에서 개최된 긴급이사회는 회의시작 40분 만에 납유거부를 결정하고 끝났다. 전국 낙농가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납유

거부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으며, D-day 는 8.10(수)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전국 낙농가들은 △원유가 173원/ℓ 인상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낙농산업, 낙농가 위상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낙농산업 존치를 위한 실질대책 수립, △설립목적 상실한 낙농진흥회 철폐, △부도덕한 유업체 부조리 척결,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무기한 납유거부를 돌입키로 하였다.

투쟁지침으로는, '① 중앙회 지침에 따라 8.10(수)부터 일제히 납유거부를 실시한다.', '② 173원/ℓ 을 수용하는 유업체는 제외한다', '③ 당일 착유한 원유는 목장 자체 폐기한다', '④ 도연합지회별로 납유거부 투쟁 상황실을 설치한다' 로 확정하였다.



## 8월 6일 투쟁 12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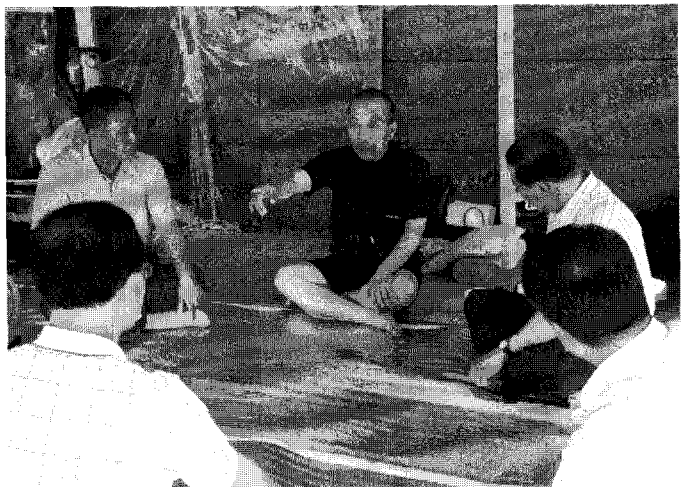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 낙농진흥회, 속임수 + 날치기 시도 무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8월 5일 마지막 9차 원유가 협상이 결렬된 후, 이날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당초 준비된 안건인 원유가 협상기간 연장 건은 제쳐둔 채, 중재안 날치기 통과가 어설픈게 시도되었다가 무산되었다. 9차 협상 당시, 농식품부가 생산자측 이사들에게 원유가 협상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이사회라고 사전 설명했을 때, 중재안 날치기 통과를 위한 사기극이란 걸 직감은 했었지만, 그래도 설마 그렇게 까지야 하겠냐는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이사회 개최 후 ‘긴급발의하면 안건상정 가능’, ‘소위원회에서는 협상타결 불가능’, ‘소비자 부담... 오늘 협상을 끝내자’ 등등 발언이 쏟아지면서 바람을 잡더니, 회의속개 직후 소비자단체 대표의 진흥회 중재안 긴급발의에 이어, 유가공협회 전무의 동의발언이 곧바로 나오면서 믿기 싫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단박에 알아챈 어설픈 사기극은 협회 심동섭 이사의 정회 요청과 생산자측 퇴장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결국 원안대로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8.9일까지)되었다.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정부, 낙농진흥회, 유업체의 꼼수와 부도덕성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 씁쓸한 순간이었다.

‘8.10우유항쟁’ D-day가 점점 다가오면서 농성장은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 준비로 분주한 나날이었다. 수많은 농가들의 지지방문과 쇠도하는 격려전화는 농성자들에게 뜨거운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를 더욱 북돋우었다.



8월 7일 투쟁 13일째

여의도 농성장은 납유거부 투쟁 준비 중  
김영록 국회의원, “정부 물가책임 낙농가에 전가, 우유 유통마진 문제” 지적

‘8.10납유거부’ 를 3일 남긴 가운데, 주말 농성장은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 준비로 종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협상기간이 이를 남았지만 이미 전국 낙농가 들은 납유거부 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성자 격려와 투쟁 동참을 다짐하는 전화가 농성장으로 쇄도했다. 농성장에서는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 세부지침을 실시간으로 각 지역에 시달하였다.

한편 전날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였던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민주당)은 6일과 7일 잇달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원유가 현실화와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낙농희생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사료값 폭등과 원유납품가 동결로 낙농가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의 수입유제품 무관세물량 확대 조치 등으로 유업체만 큰 수혜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기료,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가 현실화를 외면하는 것은 낙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이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우유 유통마진이 51%로 대리점과 대형마트가 우유수익의 절반을 취하고

있고, 제조업체 수익률도 17.5%에 달해, 낙농가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낙농육우협회가 주장하는 173원/ℓ 인상안은 지난 3년간 폭등한 사료값과 동결된 원유납품가와 대비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유업체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8월 8일 투쟁 14일째

###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 임박!

원유가 협상은 파행을 거듭할 뿐이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최종 종료시점인 9일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10차 협상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유업체 측의 입장변화 없이 9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하였다. 전국 낙농가의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 농가들이 유업체의 농가 회유·협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해당 유업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더불어 집행부는 이에 굴하지 말고, 성공적인 납유거부 투쟁 준비에만 매진하라고 격려하면서 농성자들의 어깨에 더욱 힘을 실어 주기까지 했다.

이날 오전, 협회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공개서한에서 이 회장은 먼저, 전국 낙농농민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못매를 맞아가면서도 8월 10일부터 우유공급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우유를 지속 공급하겠다는 의지로서, 진짜 우유대란을 막기 위해 생존권을 걸고 내린 무거운 결단임을 밝히며 글을 시작했다.

낙농업의 실상은 우유 짜서 100만원 벌면 80만원은 사료값으로 나가고, 나머지 목장경영을 하고 나면 부채상환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목장 생산비 폭등에 견디다 못한 많은 낙농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목장 원유 납품가격 현실화가 지체될 경우 FTA 개방과고가 있기도 전에 우유대란은 피할 수 없는 실정



임에도, 농정부처인 농식품부는 물가논치, 유업체는 정부논치 보느라 목장원 유 납품가격 현실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혀, 그 동안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아울러 우유값의 문제는 대통령 말처럼 복잡다단한 유통의 문제로 해법을 풀어야 한다며, 우리 농민들이 '정부가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힘없는 우리 낙농가들의 생존권 투쟁이 8월 10일부터 우유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나서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 우유! 우리 낙농농민! 대통령님께서 지켜주십시오!"란 애절한 요청으로 서한을 마쳤다.

## 8월 9일 투쟁 15일째

### 낙농가 생존 위해 끝장을 보자!

**"더 이상 정부와 유업체의 농간에 놀아날 우리 낙농가들이 아니다. 팽박받은 질곡의 낙농역사를 기뻐고 새로 쓰겠다."**

단식투쟁 15일째, 협회 이승호 회장은 탈수증세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이승호 회장은 악화된 건강을 염려하는 주변의 입

원권유도 뿌리치고 링거까지 거부한 채, 향후 투쟁방안을 지휘하는 투혼으로 주위를 숙연케 하였다.

여의도 농성장에는 금일 저녁부터 실시되는 납유거부(원유폐기)투쟁 지지와 이승호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전국 낙농가들의 방문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전화도 폭주하고 있다. 농성



장을 찾은 낙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 저녁부터 무기한 납유거부(원유폐기)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미 협회의 투쟁방침에 따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국 낙농가의 고조된 투쟁열기를 전했다.

한편, 협상 50여일간 무성의한 협상으로 낙농가들을 분노케 했던 정부와 유업체는 81원 원유가 인상안을 고수한 채, 납유거부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낙농가를 회유, 협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협회 이승호 회장은 “정부와 유업체가 막다른 길에 몰리자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일갈하고 “우리 낙농가들을 졸로 보는 이러한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10일 투쟁 16일째

### 25시간 밤샘 릴레이 협상 끝에, 결국 결렬 이승호 회장, 저체온·탈진증세로 강제 응급실행

‘진짜 우유대란’을 막기 위한 낙농가의 생존권 투쟁이 금일부터 중대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상초유의 무기한 납유거부를 앞두고, 8월 9일 오후 5시부터 8월 10일 오후 6시 30분까지 25시간 30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목장원유가 10차, 11차, 12차 릴레이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결렬되었다. 이날 양측은 당초 9일까지인 소위원회 마감시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하였다. 정부와 유업체측이 계속적으로 양보를 요구하자 생산자측은 협상의 진전을 보이기 위해 160원/ℓ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납유거부 투쟁 본격 돌입 시 원안이자 목장 실질생산비가 반영된 173원/ℓ 인상안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30원/ℓ, 유업체는 120원/ℓ을 각각 제시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생산자측 협상대표들은 “이승호 회장이 지금까지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납유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 낙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못 박고, “목장원유가는 낙농가가 우유 재생산과 안정적 목장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결정해야 하나, 정부, 유업체가 치졸한 협상전략을 쓰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낙농가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173원/ℓ 인상안을 물러서면서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유업체는 원유가 협상을 마치 임금협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낙농진흥회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 낙농가들의 협상결과 문의 전화가 하루종일 폭주하였다. 낙농가들은 50일 협상기간 동안 정부와 유업체가 농가 생존권을 갖고 흥정의 대상을 삼아왔으며, 납유거부 투쟁에 돌입한 상황임에도 아직도 농민 생존권은 뒷전인 채 물가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낙농가들은 목장 실질 생산비를 반영한 리터당 173원이 인상되어야, 생존권 사수는 물론이고 진짜 우유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강력한 납유거부 투쟁 전개를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이날 하루 동안 온갖 유언비어와 유업체의 방

해공작이 난무하자, 협회에서는 전국 낙농가에게 결연한 투쟁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농가에 실시간 문자 전송으로 투쟁지침을 시달하였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농성장에서는 농수축산연합회 대표자들과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낙농가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돌입 선



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였다. 농성장에서 홀로 단식투쟁을 벌인 지 16일째, 이승호 회장은 본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저녁 8시 40분, 건강상태를 우려한 협회 임원들에 의해 강제로 응급실로 향했다. 전날에 이어 오늘까지 25시간 동안 진행된 원유가 협상과 금일 납유거부 투쟁을 진두지휘한 이승호 회장은, 이틀 내내 지역 지도자, 협상대표들과 일일이 전화통화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폭염에 이기지 못해 금일 저녁부터 저체온, 탈진증세를 보여 왔다.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홍윤기 부회장, 심동섭 이사, 최재민 이사, 청년분과 임원들은 병원행을 건의했으나, 이승호 회장은 ‘해결되기 전에 갈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협회 임원들은 119를 불러 이승호 회장을 등에 들쳐 업던 도중, 쉼 목소리로 ‘나는 아직 괜찮아!’ 를 반복하며 눈물로 저항하다, 힘에 못 이겨 강제로 응급차에 실렸으며 이를 지켜보던 협회 임직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다.

## 8월 11일 투쟁 17일째

### 유업체 납유거부 방해공작, 전국 낙농가 ‘응징’ 임박

납유거부 투쟁 이틀째, 전국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낙농가로부터 유업체의 방해공작 제보가 농성장으로 속속 접수되었다. 유업체들은 회유, 유언비어 유포는 물론이고 계약사항을 들먹이며 협박을 자행하는 방해공작이 도를 넘어서었다. 협회는 당시 제보가 가장 많이 접수된 남양유업, 매일유업에 문서를 보내, 납유거부 방해공작에 대한 입장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후 2시 13차 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전국 낙농가들은 정부, 유업체가 시간끌기에 나서더니 막상 납유거부가 시작되자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김빠기 작전으로 협상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며 협회 집행부, 협상단에 전국 낙농가를 믿고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전날 밤 방배 제일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승호 회장은 이날 오전에 피검사를 받았다. 어제 스트레스에 못 이겨 농성장 벽을 머리로 막아 두통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여 뇌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의사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도 단식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8월 12일 투쟁 18일째



### 피말리는 새벽 협상 납유거부 투쟁 중단 결단

전날 오후 2시에 시작된 13차 소위원회는 이른 날인 12일까지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만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단으로서는 실로 피말리는 시간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다. 납유거부 투쟁을 전개하면서 협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언론이나 농가들의 민원폭주로 같은시간 여의도 농성장도 잠 못드는 새벽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협상은 생산자측과 유업체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11일 생산자측은 160원, 유업체는 120원을 고수하며 시작된 협상은 오후 9시를 넘기면서 생산자측이 155원, 유업체가 123원을 제시해 간극을 좁힌 듯 했지만 12

일 오전 5시에 속개된 협상은 10시에 생산자 측이 145원, 유업체가 130원을 고

수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협상 결렬 직후 협상장을 찾은 이승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비록 협상은 결렬됐지만 전국 낙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및 낙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납유거부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8월 13일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냅시다!’ 원유가 현실화 향후 대응, 일체 집행부에 위임

8월 12일 원유가 협상 최종결렬 이후, 전국 낙농지도자들이 긴급하게 모였다. 협회는 8월 1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가 현실화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먼저, 이승호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종협상 결렬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되었지만,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 “전국 낙농가가 뿔뿔 뭉쳤고, 전 국민과 언론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줬다”고 밝히고, “전국 지도자, 회원 농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냅시다!”라며 7.26일 이후 힘겨운 투쟁과정에 대한 소회와 감사의 뜻을 눈시울을 붉혀가며 전했다.

전국 지도자들은 원유가 현실화 논의과정에서,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유업체가 목장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물가만을 내세워 힘겹고 어려운 생존권 투쟁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하고, 최종 협상결렬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일체를 집행부, 협상단에 위임하였다.

또한, 다시는 농가들이 목장이 아닌 아스팔트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원유가 격 결정방식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

